

God's Table

6월 2주 : 누가복음 20장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거역하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눅 20:19)

말씀의 길잡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주님을 함정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보고 다가가 무슨 권위로 백성을 가르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대답 대신에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서 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받아 오라고 종을 보내는데 소작인들이 그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심산으로 그 아들을 아예 죽이고 맵니다. 이에 주인이 와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라며 비유를 맺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새번역)

- 1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 2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 4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 5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 6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 7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 9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 10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11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 12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 13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이 되게 하자.'
- 15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 16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17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 19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 20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 21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 22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 23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4 "데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 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까.
-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 30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 31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 32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 33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 35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 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37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 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39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40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2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44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45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6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47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으로 대화하기

영아/유치

-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딸,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신가요?
- 다같이 이렇게 외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유년/초등

- 어른들이 무서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등/고등/장년

-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좌우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눅 20:19)
-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